

# 지역 상공인들, 光銀 인수 재추진

지역 상공인들이 최근 정부에 광주은행 분리매각을 촉구하면서 광주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지역자본에 의한 인수를 추진 중이어서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와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작 정부는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지역 상공인 "향토은행 인수해 O" = 광주상공회의소는 지역 상공인들을 주축으로 광주은행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05년 지역 상공인들이 광주은행의 인수에 나섰다지만,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광주상의 전영복 상근부회장은 1일 광주시 서구 한 음식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향토은행인 광주은행은 지역자본에 의해 인수돼야 한다"며 "광주은행이 지방 기업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

## 광주상공회의소, 정부에 분리매각 요청 정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움직임 없어

에 기반을 뒀다"고 강조했다.

박홍석 광주상의 회장은 지난달 18일 유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우리금융지주 매각 때 광주은행을 분리매각을 요청했다.

광주은행 노조도 최근 성명을 통해 분리매각을 요구하기도 했다.

◇ 광주은행 매각 방안은? = 정부가 우리금융과 자회사를 묶어 관리는 구상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광주은행의 매각방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지역자본에 의한 인수 ▲시민주주 ▲기업매각 ▲전북은행과의 합병 등이다.

지역자본에 의한 인수는 4~5개의 지역 투자자들에게 지분 5~10%를

나눠 팔아 과점 주주그룹을 만들거나

5% 미만으로 지분을 쪼개파는 완전 분산매각 등이 세부 방안이다.

그러나 인수를 위해 목돈을 내놓을 증권 기업들이 워낙이나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데다 기업경기가 최악이어서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업 매각의 경우 '지방은행은 산 업자본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할 수는 있지만 경영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돼 인수 측면에서 메리트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시민주주 공모방식으로 광주은행의 시장거래가로 추산되는 1조5000억 원을 조성한다는 구상도 열악한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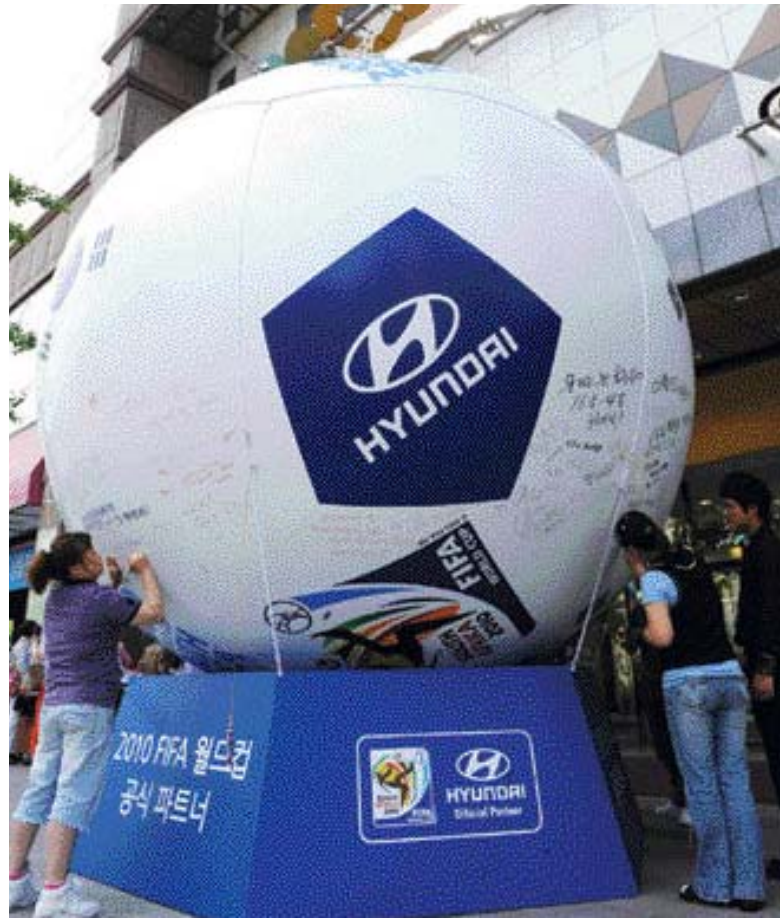
합병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합병 주체로 거론되는 전북은행의 경우 자산 7조2300억원으로 광주은행(17조 3000억원)에 비해 턱없이 적어 합병 가능성이 낮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정작 정부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사실상 우리금융지주의 지배주주인(56.97%) 정부의 대리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진동수 위원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지주 민영화 완료 시점에 대해 "길어지면 연말을 넘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1968년 9월 자본금 1억 5000만원으로 창립한 광주은행은 2001년 3월 우리금융 자회사로 편입됐다.

/윤영기·박정욱기자 penfoot@



월드컵 16강 응원

남아공 월드컵 개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1일 현대자동차가 광주 현대백화점 앞에 설치한 '승리의 마스코트 굿윌볼(Good Will Ball)'에 시민들이 한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 메시지를 적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나로호 발사 기대감 우주 항공주 급등

나로호 2차 발사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주항공산업주가 연일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소위 우주항공산업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지난해 나로호 1차 발사를 앞두고 급등했다가 발사 직후 급락한 전력이 있어 추격 매수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1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서 우주항공산업주로 분류된 11개 종목은 지난 24일 이후 일주일 동안 평균 15% 이상 급등했다.

전날 코스닥시장에서 한양이엔지와 한양디지텍이 각각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으며 쉐트렉아이(9.05%), 비츠로시스(8.21%), 비츠로테크(7.95%) 등도 급등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퍼스텍이 11.64% 올랐고, 배명금융(6.94%), 이수페타시스(4.60%) 등도 상승세다. /연합뉴스

## 아웃도어 의류·패션잡화 인기 광주·전남 채소값 안정세

### 가정의달 매출 상승 주도

각종 기념일이 몰려있는 가정의 달 5월에 선물로 인기를 끌었던 품목은 아웃도어 의류와 용품, 패션 잡화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활용도가 높은 실용적인 상품을 선물로 찾는 고객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1일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지난 달 각 상품군별 매출을 분석한 결과 아웃도어(48.3%)와 핸드백(27.6%)·구두(29.8%) 같은 잡화가 가정의 달 선물로 인기를 끌었다고 밝혔다. 아웃도어의 경우 날씨가 풀리면서 여가를 즐기려는 30~50대의 고객들이 늘

어 높은 인기를 얻었다.

특히 지난해 불황으로 매출 성적이 좋지 않았던 모피는 올해 매출이 78%나 급등했으며 중년 여성 의류도 54% 증가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건강식품(28%)을 비롯해 스포츠 용품(16%), 아웃도어(15%) 등이 잘 팔렸다. 여성용 화장품(9%)과 양말·손수건·우산 등 잡화 상품 매출도 10% 증가해 가정의 달 선물로 고정적인 인기를 반영했다.

반면 예년에 인기를 끌었던 넥타이·셔츠는 매출이 4% 감소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이상저온의 영향으로 폭등하던 광주·전남지역 채소류 등 신선식품가격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5월 소비자물가는 전달과 보험세를 이룬 가운데 전년 같은 달보다 2.5%, 전남지역은 2.8% 상승했다. 광주의 생활물가지수는 전달보다 0.3% 하락했고 전년 같은 달에 비해서는 2.9%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도 전달보다 3.0% 하락했지만 전년 같은 달보다는 5.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폭등세를 보여왔던 채소류의 경우 열무(-42.1), 호박(-37.9), 풋고추(35.6), 피망(-35.5), 배추(-34.2), 부추(-25.6) 등이 하락세로 반전됐다. 하지만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양상추(106.1), 토마토(41.8), 파(40.8), 무(36.9), 상추(36.5) 등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활물가 품목 가운데 전달보다 크게 오른 품목은 수박(81.1), 무(9.9), 마른말치(9.5), 파(9.4), 마늘(8.9), 갈치(8.3) 등이다. 전남지역 생활물가지수도 전달보다 0.3% 하락했고 전년 같은 달보다는 3.0% 상승했다. /연합뉴스

## 금호타이어,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이면계약

### 2008년 풋백옵션 요구받자 1억달러 우회 지급

금호타이어가 지난 2008년 2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출자총액제한제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이면계약을 맺고 허위로 공시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8년 2대주주였던 쿠파타이어 & 러버컴퍼니(이하 쿠파타이어)가 풋백옵션(매도청구권) 주식 1억여달러를 매각하려하자 케이먼 군도의 페이퍼컴퍼니인 비컨과 이면계약을 맺고 자금을 대여한 뒤 비컨이 이 주식을 직접 매입한 것처럼 발표한 것

로 밝혀졌다. 비컨에 대한 자금은 금호타이어 홍콩법인이 JP모건에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금호타이어 본사는 홍콩법인에 CB 상환자금을 빌려주면서 이를 '시설자금 대여'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당시 시장에서는 비컨의 풋백옵션 전량 인수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으며, 금호타이어 측은 "비컨과 금호는 전혀 상관없으며, 쿠파타이어와 비컨 양자 간에 이뤄진 거래로 풋백옵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

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측은 "쿠파타이어가 지분을 매각하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자격을 잃게 돼 출자총액제한의 규제를 받을 소지가 있었고 이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그러나 "쿠파타이어의 매각 지분을 인수해 중국적으로는 비컨의 교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주식을 다른 외국인투자자에게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금융위기로 이런 시도가 무산됐다"면서 분석회계나 배임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 순천점 (061) 752-9940 | 목포점 (061) 262-9200 | 홍성점 (062) 227-9970 | 익산점 (063) 851-2422

**1시간 40분 제주도가 더 가까워집니다.**

ORANGE

도심 7일 2일

정남진행(항구) | 승합 08:40 - 도착 10:00 | 승합 15:15 - 도착 16:30

청산포항(제주) | 승합 12:00 - 도착 13:40 | 승합 18:30 - 도착 20:10

이편 새차로 제주도를 달린다

편의점 108

자스민여행사

문의처: TEL. 061-227-2221 FAX. 010-0007-3024